

讀書가 現代生活에 주는 影響

金 亨 錫

(延世大學校 教授)

現代를 많이 생각하고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現代의 特徵을 한마디로 지어 「매커니즘」의 時代라고 한다. 現代는 마치 巨大한 하나의 機械와도 같아서 個性의 尊嚴性이라든지 人間의 人格의 優位性은 無視當하고 사람들은 큰 機械의 附屬品으로서 살고 있다.

現代의 이런 性格은 現代人들의 生活이 너무나 많이 強要되는 經濟的인 生産을 爲한 技術과 機械의 支配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모든 先進 社會들은 工業社會로 變하고 이 工業社會가 가지고 있는 特殊한 性格이 現代를 支配하고 있다.

「마르크스」主義 世界에 가게되면 工場만이 아니고 農事를 짓는것은 集團農場속에서 하기때문에 마치 機械의 한 附屬品처럼 人間들은 움직이고 있다.

사람이 이런 時代에 살게되면 自己도 모르게 「뭔가 自己는 이 組織體와는 틀렸으면」「진장을 풀고싶다」는 등의 생각을 하게된다.

우리社會는 아직 工業社會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것이 적지만 美國이나 先進國家들의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예기는 「어떻게 하면 진장을 푸느냐」하는 것이다. 이웃인 日本도 世界水準에서 볼때 經濟的으로는 三流에 屬하는 나라지만 「버스」나 전차를 타면 「어떻게 餘暇를 利用하느냐」가 主된 話題라는것이 눈에 띈다.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經濟水準이 높아지면 그런社會로 가게될것이다. 社會生活에서의 緊張을 풀지 않으면 못산다는, 緊張에서 풀려나고 싶다는데서 娛樂이 要請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大衆의 讀書라는 것은 娛樂의 代用品으로서 役割을 하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野球「게임」이나 映畫求景을 가는 氣分으로 피곤하니까 쉬어서 冊이나 보자는데서부터 讀書가 始作되는 것이다.

많은 讀者들이 娛樂의 代用品으로서의 讀書를 願하고 따라서 出版社도 그 傾向을 따라 冊을 만들어 낸다. 이것은 全 世界의 讀書傾向이다.

한例를 들어 「타임」誌만 봐도 그렇다. 담배피우는 예기부터 始作해서 政治예기를 끄집어내야 讀者들이 그 記事를 읽지 「二十世紀 後半期の 政治體系」云云하

면서 始作하는 글은 거들며 보지도 않는다. 이런 讀書傾向에서 오는 結果는 人間이 精神的인 무계와 自我를 잃고 個性을 喪失해 간다는 것이다.

다음 現代의 生活은 奔走하고 複雜하다. 反面 知識의 量은 幾何及數的으로 늘어나고 있다. 바쁜 生活에서 이 늘어나는 知識을 다 吸收하는 일은 不可能한 일이다. 그러므로 自己에게 必要한 知識만을 部分的으로 吸收하면서 산다.

萬一 自然科學을 研究한 사람과 哲學을 研究한 사람과 經濟學을 研究한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속의 研究課題를 發表하면 서로가 相對方의 예기를 알아 들을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 知識, 너는 내 知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現代人間에는 서로의 對話가 끊어져 있다.

生活은 複雜해지고 學問의 知識은 많아짐에 따라 우리의 知識도 넓어져야겠다는 必要性이 생긴다. 現代人에게 제일 必要한것은 「메스콤」式的 知識이다. 知識을 要領있게 추려가지지 않으면 살수 없는 時代가 바로 現代다. 그러기 때문에 現代의 讀書는 過去와 같이 무계 있는 讀書가아닌 新聞이나 雜誌를 읽는式的 讀書다.

이렇게 되면 人間에게는 무계있는 知識이 없어진다.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것은 알지만 「왜 그러냐」는 것에 對해서는 모른다. 마침내 마음의 餘裕를 잃게되고 自己喪失에 빠지며 精神的인 貧困이 찾아 들게된다.

讀書가 이렇게 必要한 知識을 찾는 方向으로 趣味의 代用品으로 되면 特히 被害를 받는 것은 우리 社會다.

歐羅巴나 美國은 正常的인 大學教育이 形成 돼있고 또 더 重要한것은 그들은 過去의 讀書의 傳統이다. 오늘날에는 娛樂과 便利한 대로의 雜誌나 新聞을 읽는 式이지만 過去에 무계있는 讀書의 傳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根本的으로 社會的인 폐는 없다.

한 民族이 文化的으로 받아들여오는 讀書의 한過程을 無視하면 그社會는 淺薄해지고 讀書가 人間形成에 미치는 惠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問題를 解決짓기 爲해서 어떤 길이 있을가 (7면에 繼續)

色할 정도로 每日 하루도 빠짐 없이 閱覽室을 利用하고 있다. 大體로 보아서 政治的으로 安定된 議員들이 많이 利用하는것 같다. 그러므로 大概 巨物級 政治人들이 比較的 많이 利用하는 便이나 어찌다가 무슨 큰 격한 감투나 自·他惡로 얻어 놓고 나면 公·私務에 礙여 閱覽室出入이 좀 뜸해진다. 그러다가 그 말은 바 任務가 끝나면 불야 불야 閱覽室을 찾아와서 이제 까지 밀린 資料들을 뒤적거리며 한숨돌리는 議員들이 많은것을 보면 讀書의 機會란——특히 이분들에게는——時間的인 餘有가 가장 큰 問題의 하나인것 같기도하다.

그리고 하나 흥미 있는 現狀은 國會議員中에는 辯護士出身과 教授出身議員들이 가장 많은 比率를 갖고 있으나 이분들의 閱覽室 利用이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國會圖書館이라고 해서 國會議員의 圖書館利用만이 全部일수는 없다. 「國會議員의 職務遂行에 資한다」는 共通된 任務를 갖는 國會議員들에게 資料를 提共함도 또한 重要한 일의 하나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專門委員들, 分科委員會委員들, 秘書들, 그리고 立法調査官들의 資料調査活動이야말로 國會圖書館의 大部分의 機能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것이 事實이다. 그들의 圖書館利用이야말로 間接的인것 하지만 議員들의 職務遂行에 크게——實은 大部分이지만——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흔히들 「國會議員들이 얼마나 圖書館을 利用하느냐」고 하는 質問은 우리들 圖書館員의 立場에서 본다면 별로 커다란 問題는 되지 않는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그분들이 날마다 閱覽室을 利用하지 않는다고 失望할 必要는 없고 우리들의 말은바 任務나 忠實히 履行하여 뭉치는 資料나마 어떻게 하면 보다잘 整理, 保存하느냐가 問題될 多름이다. 좀더 積極的인 PR과 奉仕가 보다 많은 利用者를 얻을수 있지 않느냐는 問題는 어느 程度의 効果는 認定하나 議員들을 相對로 하는 限別 効力은 없을것 같다. 現在와 같은 社會的인 그리고 政治的인 不安定이 永久히 계속될것도 아니요 國會圖書館이라고하여 國會議員들에게만 奉仕하여야만 된다는 條件 또한 不變한 것 아니니 구매

여 많은 關心을 여기에 쓸 必要는 없을것 같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흥미로운 事實은 立法部의 議員으로서 專門的인 資料들은 그다지 利用하지 않는다는 事實이다. 그러한 專門的인 資料들은 大略 專門委員들이나 立法調査員들 그리고 秘書들이 議員들의 要請에 依하여 資料調査를 行하여 活動하고 있으며 議員들은 이들 資料를 評價하고 審議할 能力을 갖고 있으므로 이의 選定이나 議決에 注力하고 있는것 같은 讀書傾向은 其他의 特殊圖書館이나 大學圖書館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現狀이라고 보겠다. 그리하여 圖書館出入을 하는 議員들의 大部分은 主로 國內外的 情勢나 政治思想 그리고 過去의 政治史등에 보다 많은 關心을 갖고 資料들을 찾는것 같다. 그러므로 自然히 定刊物의 利用이 많은 量을 찾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議員들에게는 흔히들 있을법한 敎養人으로서의 癖에 갖추어야 할 일들, 例컨데, 餘暇를 즐긴다, 生活에의 設計, 文學과 藝術에의 誘惑이라는등 조용한 讀書環境등은 아쉬운 存在가 아닌가 생각한다. 누구나 언뜻 생각하기에 議員들은 그러한 生活을 營爲하겠거니 생각하지만 事實 없는것 같다. 議員閱覽室에 조용히들 앉아 있을수 있도록 現實은 그들을 外面하는 것이다. 閱覽室밖에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이 그분들을 기다리고 조르고 있으니 웬만한 마음 가짐으로서의 讀書란 갖어 보기 힘든 일이다. 어찌다가 議員閱覽室에 10名가량의 議員들이 조용히 앉아 讀書하고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點은 하루속히 政治的 安定이 이룩되고 國會圖書館建物이나마 새로히 新築되어 本格的인 議員閱覽室이나마 마련 되어 이분들에게 奉仕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때가 많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國會圖書館도 비단 이들 國會議員들에게만 利用될것이 아니라 一般人에게도 公開되어 選良과 市民이 같이 利用할수 있는 機能으로 바뀌어져 보다 넓게 그리고 높이 發展되는 날이 있어야 할 것이다.

(4面에서 繼續)

첫째 讀書는 娛樂을 爲해서 있는것도 아니고 社會生活을 하기 爲한 조각知識을 모으는 것은 아니다. 讀書란 原來 生活線 以下の 問題이기 때문에 冊을 많이 읽었다고해서 生活이 나아지는것은 아니다. 절대로 敎養을 爲한 讀書 水準을 꾸준히 지켜가는것이 解決의 方法이다.

다음에 社會의 知性層이 社會가 걸어나갈수있는 理念을 指示할수 있어야 한다. 제일 不幸한 社會는 知性

層이 方向感覺을 잃어버린 社會다. 이問題도 올바른 讀書를 통해서만 解決될수 있다.

위에서 말한바 올바른 讀書態度를 維持할때 現代가 「매커니즘」에 빠지는 것을 막을수있고 우리社會가 工業社會로 뒤에도 精神的인 王國을 가지고 機械를 이끌며 살수 있을것이다. (이글은 第11回 讀書週間을 맞아 지난 9月 25日 南山市立圖書館에서 開催한 讀書 세미나에서 發表한 것을 간추린 것임)